심화영어

| [메인 문서](https://docs.google.com/document/u/0/d/1F0OwcWBFX517r8jL3AMEKxwHbz69J6QT-eIlSF7itT8/edit) | | | | | | |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[영어청해와회화](https://docs.google.com/document/u/0/d/1F8LcOotoks9mIl4i_XRl4CKPkZB8yYo35P7w1xzmAaQ/edit)  [영어독해와작문](https://docs.google.com/document/d/1BJbdgRl58HBT6FR2l8DHQIev2PLuHEmGAwc4UXmhQ8E/edit?usp=sharing) | | > | 심화영어 | | > | 없음 | |

## 개요

Erling Thompson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말그대로 상당히 심화된 영어 과목이다. 2021-1학기에 개설되었지만 소문이 퍼졌는지 2021-2학기는 폐강되었다.

## 정보

2021-1학기는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제국주의의 흔적,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다루며 Joseph Conrad의 Heart of Darkness 소설, Lawrence of Arabia와 Apocalypse Now 영화를 다루었다.

이 과목은 정말 좋은 과목이다. 이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은 KSA의 모든 영어과목 중 가장 심도있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며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고 제국주의가 무엇인지, 사회는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관찰하기에 철학적인 의미도 크다. ~~근데 수강생들이 좋은 과목인건 인정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듣지 말라고 하던데… 뭔가 이유가 있는듯 하다.~~

## 과제

\*2021-1학기 기준

Heart of darkness라는 1899년작 소설 읽기

위의 소설을 읽으며 매주 내용 정리, 질문 답하기로 에세이 제출하기 (7회)

20분 발표, 30분 discussion으로 1시간 수업 진행하기

=> 영독작+영청회 과제의 획기적인 융합!

## 시험

기말고사만 보며 에세이 형식이다. 한학기동안 정신 차리고 있었다면 시험은 별 문제 없을 것이다.

## 난이도

높다. 기본적으로 다루는 주제와 책이 상당히 난해하다. 사실 1899년 책이면 한국어 책을 읽어도 난감하다. 게다가 수업 진행도 해야되니까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간다.

## 팁

~~5학기보다는 3학기에 듣는 것을 추천한다. 이 과목은 학점을 상당히 잘 준다. 하지만 이거 하다가 다른과목 학점이 터질 수도 있다.~~

## 기타

기타칠 시간이 필요하면 듣지 마라.